

# 전문가들과 전주만의 관광 미래 모색

### 전주시, '시민과 함께 전주관광의 미래를 묻다' 주제로 관광거점도시 시민대토론회 개최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전주시가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관광의 미래 그리기에 나섰다.

시는 3일 라한호텔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전주관광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2021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시민대토론회에는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문화관광 분야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해 전주관광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시민대토론회 첫날인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박양우 전 장관은 ▲국제관광재계 전략 수립·구축 ▲관광정책 통계 기반 등 관광산업 혁신역량 강화 ▲지역관광 콘텐츠 다양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관광 분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대표 관광 매력 강화(Attractiveness) ▲접근 가능한 관광 실현(Accessibility) ▲스마트관광 도입(Digitalization) ▲보이는 관광 추진(Visualization) ▲지역계획 연계 구축(Networking)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Governance) 등 관광거점도시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3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1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김석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실장은 뉴노멀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티케이션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주제토론회도 진행됐다. 주제 토론회에서 금기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현실과 가상이 융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해, 이수범 경희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국어 안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행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수와 류인평 전주대학교 교수는 각각 지역의 주요 골목과 오래된 건물자산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이색식당, 특색매장, 문화공간 등을 연계하자는 로컬관광 콘텐츠에 대한 내용과 음식, 체험, 생태 관광 등 테마별 연계 상품의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양우 전 장관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토론회 실황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가 '로컬리티의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과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이 각각 '글로벌 관광도시, 전주의 조건'과 '전주 관광거점도시의 사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 분야 청년 30여 명이 5개 분과로 나누어 전주 관광의 미래를 모색하는 주제토론회도 열린다.

시는 이번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여행학교, 전주 전통관광 팸투어, 짜잔다리 여행지관장 조성사업, 조선팔 페스티벌 등 '한옥마을 2.0'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은 미리 준비하는 도시에 기회가 올 것"이라며 "전주만의 지역과 색깔, 오랫동안 축적해온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지속가능한 여행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3일 열린 쇄동구리 어린이 공원 개장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야호놀이터' 릴레이 개장

### 전주시, 덕진공원 맘껏놀이터 · 덕진동 쇄동구리공원 효자동 효문 · 풍남어린이공원 등 4곳 본격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수에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전주시는 3일 덕진공원 맘껏놀이터와 덕진동 쇄동구리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염윤미 C-Program 대표,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백순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야호놀이터 릴레이 개장식을 개최했다.

시가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이번에 문을 연 놀이터는 ▲덕진공원 맘껏놀이터 ▲덕진동 쇄동구리공원 ▲효자동 효문어린이공원 ▲효자동 풍남어린이공원 등 4 곳이다. 이곳들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자신들의 놀이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등 특색있게 조성됐다.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생긴 맘껏놀이터는 생태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맘껏숲'과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인 '맘껏하우스'로 꾸며졌다. 전주시와 아동권리증진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축했다.

또 덕진동 주택단지에서 들어선 쇄동구리공원은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반영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공원 이름을 닮은 독특한 형상의 인공언덕 놀이대가 공원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줄 쥘

라인과 바구니 그네 등이 주변에 설치돼 모험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효문어린이공원은 키보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풍남어린이공원은 바구니그네, 그물놀이대, 나무집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인근 효림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이 3곳은 벤처기부펀드인 'C-Program'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시는 이날 개장식에서 아동친화 공간 디자인 조성에 힘쓴 협약 기관과 설계사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불꽃심기 퍼포먼스, 바구니그네 밀어주기 체험, 청소년 댄스공연 등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숲놀이터 9개소와 생태놀이터 14개소,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전통놀이터 등 창의적인 놀이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기존 정형화된 놀이터를 아이들의 창의성이 깃든 다양한 상상놀이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과 협동,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도심 곳곳에 책 놀이터, 숲 놀이터, 예술 놀이터 등 전주형 야호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상상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올해 어린이날 전주동물원 셔틀버스는 미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매년 어린이날마다 운행하던 셔틀버스를 올해에는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시는 어린이날이면 전주동물원을 셔틀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동물원의 동시 간대 입장인원을 5,000명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셔틀버스 운영으로 일시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입장객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입로 주변에 교통 상황판을 배치하고 차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동물원 주차장의 주차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차 시에는 인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이나 길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연중 운영

전주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역 내 만 19세 이상 건강고위험군 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측정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

이다. 참여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자료와 모바일 앱으로 연동된 순목 활동량 계를 통해 향후 6개월간 건강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시작, 중간, 최종단계 등에서 3회에 걸쳐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직장인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스스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전주시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각종 해충 증가로 시민들의 방역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방역이 어려운 사유지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자율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윤상 기자

김신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모바일 앱 및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등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심뇌혈관센터(063-281-633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